

문서번호	경영전략팀-1374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16.12.14
공개여부	공개

★ 경영전략팀장	경영지원처장	전무이사
류성훈	한승호	전결 12/14 정하진
협조		

2016년 우수지방공기업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뉴질랜드/호주)



대구시설공단
(경영전략팀)

목 차

I . 연수개요	3
II . 연수일정	4
○ 연수일정표	4
○ 이동경로	5
○ 국가별주요방문지.....	5
III . 국가별 주요 연수내용	6
[뉴질랜드]	
○ Rotorua Government Gardens	6
○ Watercare Auckland.....	7
○ Christchurch 지진복구 재개발 현장 ---	11
○ Hagley Park	12
[호주]	
○ Blue mountains 국립공원.....	13
○ Scenic World.....	14
○ Paddington Reservoir Gardens	15
○ Barangaroo 재개발 현장	16
○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18
IV . 연수결과 시사점	22
[붙임] 귀국보고서(공무국외여행운영내규에 따른 제출서식)	

2016년 우수지방공기업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뉴질랜드/호주)

해외 우수 공기업의 경영철학 및 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 2016년 우수지방공기업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1 연수개요

① 연수국가 : 뉴질랜드 / 호주 (2개국)

② 연수기간

○ 2016.11.6(일)~15(화), 8박 10일

③ 연수주제

- 선진 외국의 지방공기업 제도 연수
- 해외 우수지방공기업의 성공사례 연구

④ 연수인원 : 18명

○ 시·도 공무원 7, 지방공기업 10, 평가원 1

순번	소속	직급	성명	순번	소속	직급	성명
1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행정5급	이전진	10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과장 (행정4급)	김현수
2	부산시청	행정5급	이형식	11	남양주시	주무관 (시설7급)	표영애
3	대구광역시	팀장 (행정5급)	박재봉	12	파주시	직원 (행정7급)	유은주
4	대구 도시철도공사	팀장	배한우	13	평택 도시공사	사장	이연홍
5	대구 도시공사	전무이사	윤광수	14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석만
6	대구 도시공사	과장	조각래	15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대리	정 원
7	대구 시설공단	팀장 (사무3급)	류성훈	16	안산 도시공사	부장 (3급)	김성권
8	광주광역시	행정5급	이영인	17	안동시	행정7급	김명숙
9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본부장	박문기	18	지방공기업 평가원	전문위원	황진용

2 연수일정

1 연수일정표

날짜	방문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1일차 11/06 (일)	인천	KE129	오후	- 17:15 인천국제공항 출발
2일차 11/07 (월)	오클랜드 로토루아	전용차량	오전	- 08:25 오클랜드국제공항 도착
			오후	- 로토루아로 이동 ■ Rotorua(로토루아)도시개발현장 가버먼트 가든
3일차 11/08 (화)	로토루아 오클랜드	전용차량	오전	- 로토루아 문화 탐방
			오후	- 오클랜드로 이동 ■ Watercare Auckland
4일차 11/09 (수)	오클랜드 퀸즈타운	전용차량 NZ613 전용차량	오전	오클랜드 문화탐방
			오후	- 14:25 오클랜드공항 출발 - 16:15 퀸즈타운 공항 도착 - 퀸즈타운 문화탐방
5일차 11/10 (목)	퀸즈타운 밀포드사운드 퀸즈타운	전용차량	오전	- 밀포드사운드 탐방
			오후	- 퀸즈타운으로 이동
6일차 11/11 (금)	퀸즈타운 푸카키 크라이스트처치	전용차량	오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 재개발 현장 견학 해글리시민공원 개발현장
			오후	크라이스트처치로 이동
7일차 11/12 (토)	크라이스트처치 시드니	VA133 전용차량	오전	- 06:00 크라이스트처치 국제공항 출발 - 07:35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오후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Scenic World
8일차 11/13 (일)	시드니	전용차량	오전	Barangaroo지역 개발 현장
			오후	- 문화탐방
9일차 11/14 (월)	시드니	전용차량	오전	Paddington Reservoir Gardens 급수시설 재개발 현장
			오후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10일차 11/15 (화)	인천	KE122	오전	- 09:00 시드니국제공항 출발
			오후	- 17:40 인천국제공항 도착

② 이동경로



③ 국가별 주요 방문지

○ 뉴질랜드

- Rotorua Government Garden
- Watercare Auckland
- Christchurch 지진복구 재개발 현장
- Hagley Park 시민공원

○ 호주

- Blue Mountain 국립공원
- Scenic World
- Paddington Reservoir Gardens 급수시설 재개발 현장
- Barangaroo 재개발 현장
-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3 국가별 주요 연수내용

■ 뉴질랜드(New Zealand)

① Rotorua Government Gardens (로토루아 거버먼트가든)

○ 방문지 정보

- 뉴질랜드 북섬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의 Rotorua에 있는 영국식 정원
- 영국 식민지 시대 관청 건물로 사용, 현재는 박물관과 공원으로 이용 중



- 1880년 도착 마오리족이 기증한 땅을 뉴질랜드 정부가 정원으로 조성
- 1908년 남태평양 온천명소로 만들기 위해 Bath House 개장
- 1930년 초 지중해풍 온천장 Blue Baths 건설
- 현재 예술역사박물관, 오키드가든, 폴리네시아안 풀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② Watercare Auckland (워터케어 오uckland)

○ 기관정보

- 오uckland 상하수 서비스 공급자
- 2010년부터 오uckland 의회의 통제를 받는 기구로 운영
- 140만 오uckland 시민들에게 물 공급 (일간 326백만 리터의 물 공급)
- 자산 : 8,200만 달러
- 임직원수 : 877명
- 16,800Km의 상하수도 관로 관리
- 90개의 저수지 보유
- 584개의 상·하수도 펌프 스테이션
- 164,000개의 맨홀 관리



○ 법적지위 및 운영관련 사항

- 상·하수도 요금 및 IGC(Infrastructure Growth Charges, 기반시설성장요금)를 통해 자체 재원조달
- 오uckland 의회로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음
- 수익금은 모두 기존 시설물 운영 및 새로운 기반시설을 개발하는데 사용됨
- 오uckland 의회의 계획을 실행
- 보건(식수)관련 법률, 건강 및 안전관련 법률, 자원관리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기관의 VISION



“매일 매일 뛰어난 성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 받는다”

- ‘오늘의 우리보다 더 나은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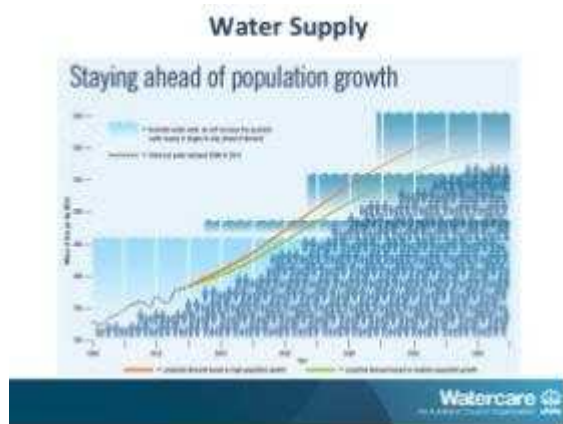
○ 우수사례(1) ; 인구증가에 대비한 계획수립

-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계획 수립
- 30년 후 까지 약40만명의 신규거주자 포함, 최대 100만명의 인구증가 예견
- 이에 따른 수도공급, 하수처리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Auckland's Projected Growth in the Next 30 Years

LOCATION	NEW DWELLINGS	PEOPLE (MEDIUM GROWTH)	PEOPLE (HIGH GROWTH)	COMPARATOR
Brownfield	276,000	472,500	655,000	2x Wellington
Greenfield (FUD)	98,000	157,500	278,000	Hamilton
SHAs	40,000	70,000	70,000	Palmerston North
TOTAL	*408,000	700,000	1,000,000	

* Excludes 34,000 dwellings in rural zones not serviced by Watercare



[2060년까지의 물공급 수요 예측]



[2046년까지의 하수처리시설 여력]



[watercare 담당자 브리핑 - 인구증가대비 계획]

○ 우수사례(2) ; 선진화된 하수관로 상태평가 시스템

- 첨단장비를 통한 체계적인 관로 상태점검으로 위험발생요인 예측 및 관리

- Sonar Profiling
 - CCTV
 - 코어 샘플링
 - 레이저 Profiling
- 등을 통한 상태평가



Asset	Condition Rating
1	Excellent - Description: "A small section pipe, with no visible signs of damage."
2	Good - Description: "A small section pipe, with no visible signs of damage."
3	Fair - Description: "A small section pipe, with no visible signs of damage."
4	Poor - Description: "A small section pipe, with no visible signs of damage."
5	Very Poor - Description: "A small section pipe, with no visible signs of damage."

[상태등급 조사표]



[오수관로 상태등급 현황]



[watercare 담당자 브리핑 - 상황실]

○ 우수사례(3) ;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실현



- 전략 우선순위를 고객중심, 사업역량, 재무건전성, 완전지속가능성에 두고 있음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2025년까지 물 사용량 15% 감축 등을 목표로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추진

○ 우수사례(4) ; Be Waterwise 프로그램

-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간행물 발행
- 가정 및 기관, 학교 등에 물 절약 캠페인 및 교육 등 시행으로 지역사회공헌 활동 추진



[Be waterwise 프로그램]



[간행물 TAPPED IN]



③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 · 재개발 현장

○ 현장정보

- 2011년 6.3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 지역
- 2008년 이후 자연재해 피해액 최대규모 (약160억 뉴질랜드달러)
- 지진 발생이후 현재까지 지진복구 작업 계속 진행 중
- 점진적인 지진피해 복구에 따라 지진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전체가 공사 중인 인상을 줌
- 지진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뉴질랜드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경기가 부진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고 함
- 실제로 연간 건축허가 금액이 2007년 124억 뉴질랜드 달러에서 2011년 89억 뉴질랜드 달러로 떨어졌으나 2016년 100억 뉴질랜드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



[지진피해건물과 캔터버리대성당 복구현장]



④ Hagley Park (해글리 시민공원)

○ 공원정보

-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공원
- 1855년 당시 캔터베리 지방 정부에 의해 설립
- “공공의 여가와 즐길거리를 위해 영원히 개방되고 보존됨”
- 1.61km²의 광대한 부지
- 리카톤 거리를 경계로 북 공원, 남公園으로 나뉨
- 북쪽 공원에는 골프 코스(12홀), 테니스장, 축구장 등이 설치
- 남쪽 공원에는 네트 볼 코트, 럭비 경기장, 축구 경기장, 크리켓 경기장, 하키 경기장 등이 설치되어 크라이스트처치의 각종 스포츠 경기 시설로 이용



[공원을 따라 흐르는 에이번 강과 공원전경]

- 공원의 가운데에는 Botanic Garden과 캔터베리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음



[해글리공원 중심부 Botanic Garden]

■ 호주 (Australia)

① Blue Mountains(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공원정보

- 시드니에서는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해발 1100m, 247,000헥타르의 규모를 자랑하는 산악 국립공원
- 온대성 유칼립투스가 울창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암 고원 및 협곡 지역
- 유칼립투스에서 분비되는 수액이 내리쬰는 강한 햇빛에 산 전체가 푸른빛으로 반사되어 산이 푸르게 보인다고 하여 블루마운틴이라 불림
-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 총 8곳의 보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희귀종과 멸종우려종이 살고 있어 호주의 생물 다양성을 잘 대표함



[블루마운틴 세자매봉 전경과 내부 산책로 탐방]

○ 옛 탄광의 흔적들을 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있음



② Scenic World (씨닉월드)

○ 공원정보

- 에코포인트에서 약 2km, 도보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
- 1950년대 탄광촌이었던 곳을 다시 개발하여 세운 곳
- 시닉 스카이웨이, 시닉 레일웨이, 시닉 케이블웨이로 이루어져 있음

○ 레일웨이

- 예전에 탄광을 위해 사용했던 트롤리(Trolley)를 개조한 것으로 52도에 이르는 가파른 협곡 위를 달리는 궤도 열차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열차)



○ 케이블웨이

- 초속 5m의 속도를 자랑하는 케이블웨이는 블루마운틴의 가파른 협곡과 시닉월드를 이어주며 케이블웨이를 타고 가면서도 블루마운틴 명소 세 자매봉을 감상할 수 있음



- 자연자원과 기존 탄광시설 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다이내믹한 즐길거리를 접목하여 자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점이 돋보임

③ Paddington Reservoir Gardens (패딩턴 저수지 정원)

○ 시설정보

- 1866년에 건설된 습지 펌프시설로 초기 시드니 교외의 수자원 공급용으로 사용되었으나 1899년 다른 저수지 시설들의 확충으로 사용이 중단됨
- 이후 1910년 부터는 이곳을 차고지 시설로 사용하였으나, 1990년 철재구조물 부식 등의 사유로 천정이 무너져 내림
- 2006년부터 보존, 복구, 재사용 작업에 착수하여 2008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정원으로 재개장



[건설당시의 기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

○ 시사점

- 무너진 옛 저수지터를 역사로 인정하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재활용하여 안으로 폭파인 구조를 띄고 있으며, 정원내 Deck chair비치, 무료 wifi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음



[정원내 비치된 Deck Chair와 도심에서 여유를 즐기는 시민의 모습]

4 Barangaroo(바랑가루) 재개발 현장

○ 지역정보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하버브릿지 남쪽 끝에 위치
- 19세기 중반 이후 시드니하버 해안의 부지가 점점 평평한 사각 컨테이너 항구로 변해가기 시작
- Paul Keating 호주 전 총리가 이러한 콘크리트 항구를 1836년 이전의 해안 경관을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재창조하는 계획을 발표
- 토착민에 대한 건축적 기념비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



○ 주요 설계 원칙

- 최대한 건축적인 요소를 제한
- 전체 부지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1836년경 지도와 그림을 참조해 당시 해안선의 모습을 3차원적으로 재현
- 해안 산책로는 도시적 규모로 조성, 100년 이상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 (약 2.5km길이, 워터프런트 연결)



[문화공간인 Cutaway와 바랑가루 녹지의 모습]

○ Barangaroo Masterplan

- 총22헥타르 규모, 60억 달러 투입
- 시드니하버 서쪽해안 재정의,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화
- 약24,000개의 일자리, 11헥타르 규모의 공유지, 연간 20억달러의 경제효과
- 바랑가루 보호구역 / 센트럴 바랑가루 / 바랑가루 사우스 등 세 개의 재개발 구역으로 구성
- 2022년 계획 완료 목표 (2015.8월 첫단계로 바랑가루 보호구역 개장)
- 여가, 상업, 주거, 시민활동 등 용도를 결합한 시드니 워터프런트의 새로운 랜드마크



[바랑가루 보호구역 / 센트럴 바랑가루 / 바랑가루 사우스의 모습]

수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시드니 올림픽 파크)

○ 기관현황

- 2001년 7월 시드니올림픽공원관리 기구법에 의해 설립
- 1990년대 중반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염되어 있었던 부지를 개발
- 1,800만 달러 규모의 시설 관리
- 430헥타르의 공원구역, 7개의 체육시설 등 건물, 시설, 경관 자산 등 관리 업무
-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 시행
(매년 1,000만명 방문 5,000개 이상의 이벤트)



○ 주요시설



- 체육시설 등
 - ANZ STADIUM외 6개시설
 - 골프센터, 마운틴X, 스케이트 공원 등
 - ※ 메인체육시설 4개는 전문업체 위탁관리 (35년 운영 후 정부로 반납)
- 공 원
 - Bicentennial Park, Wentworth Common



[Sydney Olympic Park 담당자 브리핑 - 기관현황]

○ 시설견학 ; Aquatic Centre

-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수영 경기장으로 쓰였던 시설
- 현재 경기용 풀, 어린이용 풀, 헬스클럽, 놀이시설 등을 운영 중
- 경기용 풀은 규모 51.5mX25m, 깊이 2~3m, 10개의 레인
- 각종 국제경기 및 학교, 지역사회 동호인 대회 등 활발히 개최
- 수영이 인기 종목인 호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관중 규모에 따라 관중석을 확장할 수 있는 가변식 구조로 설계



[가변식 구조로 설계된 시설 외관]



[경기용 레인]



[Sydney Olympic Park 담당자 브리핑 - Aquatic Centre]

○ 시설견학 ; Bicentennial Park

-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 개척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 정부가 건설한 공원
- 시드니올림픽파크를 끼고 100헥타르의 습지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연유산 지역과 40헥타르의 공원 구역으로 구성
-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습지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됨
- 소풍공간, 운동장, 산책길, 자전거 전용도로, 분수, 탑 등이 고루 분포



[Sydney Olympic Park - Bicentennial Park]

- 공원내 전기 바바큐 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설치,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Arc of pines 녹지공간]



[어린이 놀이공간]

○ 우수사례 ; MasterPlan 2030

- 시드니올림픽파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까지의 청사진
- 미래의 설계, 계획 원칙을 설정
- 시드니올림픽파크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함
- 총 개발면적 1,960,000m², 10,700가구, 34,000개의 일자리, 100,000m²의 상점과 서비스시설 입점 목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요 이벤트 개최지’, ‘환경적, 여가활용적 가치’, ‘커뮤니티와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위한 장’이라는 원칙을 고수



[MasterPlan2030]

○ 시사점

- ‘역대 최고의 올림픽 개최 장소’라는 위대한 유산을 지켜가면서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의 변모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여 끊임없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
- 그와 동시에 애초의 설립목적과 핵심가치는 고수해 나가려는 모습은 배울점임

4 연수결과 시사점

■ 뉴질랜드(New Zealand)

① Rotorua Government Gardens

- 옛 식민지 시대 관청건물을 보존하여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토착민인 마오리족이 기증한 땅을 공원으로 활용
- 로토루아 지열지대의 특성과 온천자원 등을 이용한 Bath House, 폴리네시안 풀 등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옛 전통을 동시에 느낄수 있게 해주고 있음
- 식민지 시대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착민의 공간과 함께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변모시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② Watercare Auckland (워터케어 오uckland)

- 뉴질랜드 최대의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자로, 우리나라의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 환경공단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음
-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뉴질랜드 인구수에 대비하여 향후 30년 후 까지 수요를 예측하여 수도공급과 하수처리계획, 기반시설설치 및 유지보수계획 등 장기적인 전략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첨단장비와 표준화된 상태등급조사표를 활용한 관로의 면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오uckland 전역의 관련 시설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하여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 “완전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전략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물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고, 'Be Waterwise'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에도 힘쓰고 있는 점은 배울 점임

③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 · 재개발 현장

- 지진으로 파괴된 시설물과 건축물들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복구해 나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지진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지역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주택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거나, 이로인한 도심 공기질 악화와 공사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요인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2016년 11월 또 한번의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지진복구 사업에 일정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임

④ Hagley Park (해글리 시민공원)

- 크라이스트처치의 심장부에 1.61km²의 광대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공의 여가와 즐길거리를 위해 영원히 개방되고 보존” 되도록 하고 있음
- 에이번 강 줄기를 따라 걸으면서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각종 스포츠 경기와 레저·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임

호주 (Australia)

① Blue Mountains 국립공원 / Scenic World

- 상당수 희귀종과 멸종우려종 생물들이 살고 있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자연을 훼손을 최소화하며 상업적인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기존의 탄광촌을 관광자원화 하고 당시 사용했었던 트롤리를 개조하여 즐길 거리로 만든점과 이를 연계하여 레일웨이, 워크웨이, 케이블웨이, 스카이웨이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ダイナ믹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은 자연파괴를 동반한 랜드마크건설 등에 치중된 현재의 우리의 개발방식과 관광객 유치 전략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함

② Paddington Reservoir Gardens (패딩턴 저수지 정원)

- 1866년 건설된 저수지 시설이 그 역할을 다하고 1990년대 차고지로 쓰이다 그마저 무너져 내려 폐허가 된 이곳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특색있는 휴식시설로 재개발
- 쓸모 없고 무너진 폐허를 그 자체로 보존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여 새로운 시설로 변모시켜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호주인들이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대하는 방식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③ Barangaroo(바랑가루) 재개발 현장

- 19세기 중반이후 시드니하버 해안의 부지가 점점 사각 컨테이너 항구로 변해가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곳을 발견할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데서 이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됨
- 이곳 토착민에 대한 존경과 애착이 이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Barangaroo라는 명칭도 토착민 여인의 이름을 따 정해진 것이라고 함
- 22헥타르 규모에 60억 달러를 투입하여 방대한 녹지와 각종 산책로, 문화공간, 여가공간, 상업공간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를 조성하고 있는 그 의도와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④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시드니 올림픽 파크)

- 호주인들이 “역대 최고의 올림픽” 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최시설의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 설립된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는 ‘주요 이벤트 개최지’, ‘환경적, 여가활용적 가치’, ‘커뮤니티와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위한 장’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MasterPlan2030"계획을 통해 주거와 휴식공간, 일자리 창출, 상업시설 조성 등 시드니 교외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 유지관리 기관이 아닌 도시개발, 공원 및 스포츠시설 유지관리,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복합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그 존재가치를 높여가고 있음

귀 국 보 고 서

가. 여행개요					
여행국	뉴질랜드, 호주	여행도시	오클랜드(뉴질랜드), 시드니(호주) 외	방문기관	워터케어(뉴질랜드) 시드니올림픽파크 (호주) 외
여행목적	분야	해외 우수 공기업 벤치마킹 (2016년 우수지방공기업 해외연수)			
	해외 우수 공기업의 경영철학 및 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				
여행기간	2016년 11월 6일 ~ 2016년 11월 15일(8박 10일)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경영전략팀	사무직3급	류성훈		

나. 여행결과 요약

<뉴질랜드(New Zealand)>

① Rotorua Government Gardens

- 식민지 시대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착민의 공간과 함께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변모시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② Watercare Auckland (워터케어 오클랜드)

- “완전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전략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물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고, ‘Be Waterwise’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에도 힘쓰고 있는 점은 배울 점임

③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재개발 현장

- 지진으로 파괴된 시설물과 건축물들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복구해 나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지진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지역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주택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이로인한 도심 공기질 악화와 공사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요인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2016년 11월 또 한번의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지진복구 사업에 일정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임

④ Hagley Park (해글리 시민공원)

- 크라이스트처치의 심장부에 1.61km²의 광대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공의 여가와 즐길거리를 위해 영원히 개방되고 보존” 되도록 하고 있음
- 에이번 강 줄기를 따라 걸으면서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각종 스포츠 경기와 레저·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임

<호주(Australia)>

① Blue Mountains 국립공원 / Scenic World

- 기존의 탄광촌을 관광자원화 하고 당시 사용했었던 트롤리를 개조하여 즐길거리로 만든점과 이를 연계하여 레일웨이, 워크웨이, 케이블웨이, 스카이웨이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ダイナ믹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은 자연파괴를 동반한 랜드마크건설 등에 치중된 현재의 우리의 개발방식과 관광객 유치 전략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함

② Paddington Reservoir Gardens (패딩턴 저수지 정원)

- 쓸모 없고 무너진 폐허를 그 자체로 보존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여 새로운 시설로 변모시켜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호주인들이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대하는 방식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③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시드니 올림픽 파크)

- 호주인들이 “역대 최고의 올림픽” 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최 시설의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 설립된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는 ‘주요 이벤트 개최지’, ‘환경적, 여가활용적 가치’, ‘커뮤니티와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위한 장’ 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MasterPlan2030”계획을 통해 주거와 휴식공간, 일자리 창출, 상업시설 조성 등 시드니 교외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 유지관리 기관이 아닌 도시개발, 공원 및 스포츠시설 유지관리,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복합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그 존재가치를 높여가고 있음

다.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 별첨

※ 보고서 주제는 여행목적을 테마로 작성